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구례 방광권역 주민소득사업을 중심으로 -

조진상

동신대 도시·관광계획학과 교수

Performance and Problem Analysis of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 Case Study of the Income Project in Gurye Banggwang Villages

CHO, Jinsang

Dongshin University, Department of City & Tourism Planning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and evaluate issues and performance of development projects of Gurye Banggwang villages' key projects, especially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resident income augmentation. The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factory, the valley resting, the urban and rural exchange center, and the village festival have been closely selected a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resident income. Analysis of survey of resident and two agriculture unions' members led the performance and problem of Banggwang villages' development projects. The income project has the difficulties of recruiting members, lack of professionalism of people in production and marketing of processed products, and conflict between members etc. For this reason, income projects being adopted as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is often negative. Compare to the other cases, Banggwang village has more reflection of the income project, and has lot of interest by policy makers whether it be pursued successfully. It is too early to evaluate a performance properly because it is the beginning of income projects and the experience are not yet being sufficient. However, the performance is appearing gradually from various sides. For example, dividend of business profits,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are developing increasingly. Income projects have strengthens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interest in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and with securing stable funding it will help to maintain the facilities.

Key words : citizen participation, income project, rural development,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1. 머리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된 지 6년이 지났다. 2009년 말이면 처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권역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를 중간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소득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여러 우려 때문에 정책결정자나 계획자들은 소득사업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에 반영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일부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사업을 착수한 전국 36개 권역중 하나인 구례 방광권역을 사례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특히 주민소득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농촌마을사업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검토와 함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이론적 배경에 관해 간단히 논의하였다. 이어서 구례 방광권역에서 지난 5년동안 수행해 왔던 사업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주민소득증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사업의 추진과정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주민소득사업의 성과와

Corresponding author: CHO, Jinsang

Tel : 061-330-3175

E-mail : jscho3175@hanmail.net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우선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존의 보고서나 논문을 검토하고 방광권역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된 보고서나 행정내부자료를 검토하였다. 참고문헌에서 소개했다시피 방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관련한 몇권의 보고서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사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유용한 자료는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서술한 대부분의 내용은 사례 연구 대상 지역의 관계 공무원, 농어촌공사 관계자, 권역 추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권역리더, 일반 주민중 사업 관계자, 농산물가공공장 운영자 등 다양한 관계자와의 다면 심층면담과 수년간에 걸친 필자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 얻을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자료의 활용은 자칫 주관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를 가능한 한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사업에 참여하는 영농조합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방광권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중에서 4개의 주민소득사업을 선정해 그동안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뒤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발전방안의 도출 및 다른 지역에 적용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관련 연구의 검토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반적 고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이 동일한 몇개의 법정리를 소권역으로 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¹⁾

사업내용은 도로·상하수도·주택 등 기초생활시설, 다목적 회관·야외소공연장·마을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강관리시설 등 복지시설, 야영장·관광안내소·생태학습장 등 농촌관광시설, 마을숲 조성·지붕담장정비·빈집정비 등 경관시설, 오페수처리시설·생태하천정비 등 환경시설,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 잔디광장·산책로 등 휴양시설, 농로·용배수로 정비 등 생산기반시설, 소하천정비 등 재해시설, 도시민·은퇴자 유치 위한 마을재개발 정비 및 전원주거단지조성 등 인구유치시설과 함께 농산물 가공시설 등을 비롯한 소득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효과적인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추진가능한 사업을 메뉴방식으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으며 사업의 구체적 선택은 지역 자율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5년 착수했고 2009년 8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230개 권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몇 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 시설투자 (H/W)와 지역역량강화 (S/W)가 포함된다.

권역당 예산은 권역 주민의 수에 따라 약 40억원에서 70억원까지 차등배정되고 사업기간은 5년이다. 주민이 수립한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대상 권역을 선정해 전문가의 참여하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시·군이 추진주체가 되어 5년간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이전의 여러 농촌개발사업과 비교해 여러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권역사업이라는 점이다. 동 사업은 권역 공간의 크기가 1980년대에 추진된 군단위 또는 면단위 농촌개발사업보다는 작고 2000년대 초에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도입된 마을단위 농촌개발사업보다는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²⁾째, 기존의 농촌개발정책에서 추진되어 왔던 하드웨어 사업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한 종합개발사업이란 점에서 기존의 농촌지역개발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셋째, 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라는 점도 이전의 많은 농촌개발사업과 차이가 많다. 권역의 선정 단계 뿐만 아니라 시설투자사업의 추진, 시설 사후 운영 등 다양한 계획단계에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넷째,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토대로 지역을 개발하는 형태를 지닌다. 과거의 한정된 사업메뉴에서 탈피해 지역자원과 특성에 맞게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투자재원도 사업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을 최대화시키고자 한다. 다섯째, 지역개발 파트너십 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관련 학계,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촌지역 발전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현재 농촌지역의 큰 관심 속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소득사업 추진의 어려움, 조성된 시설의 유희화,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성과 측정의 곤란 등 문제점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유사한 외국 사례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LEADER 프로그램⁴⁾을 들 수 있다. LEADER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의 농촌개발정책프로그램으로서 지역(Territorial), 다부문(Multi-sectoral), 참여적 접근(Participatory Approach)을 통한 내생적(Endogenous) 농촌개발전략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개발전략이다. 1991년에 시작해 2번의 수정과정을 거쳐 현재도 시행중에 있다. LEADER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농촌지역개발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주요 특징으로는 농촌현장에서의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체계의 구축, 사업추진체계안에서 자율적인 수평적 네트워크의 창출, 특정 농촌지역의 차별화 속성을 강화하려는 지역 접근방법, 진단-계획-시행에 이르는 개발사업 전 과정에 농촌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들 수 있다. 요약하자면 LEADER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의 핵심은 ‘혁신’과 ‘파트너십’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⁵⁾.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소득사업의 의의 및 필요성

박한식 등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132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대상 권역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소득기반사업의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⁶⁾.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도입 초기에는 계획 수립 일선에서 소득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곤 했지만 부지확보의 어려움, 자부담에 대한 부담, 권역주민의 소득사업 운영 경험의 부족 등 시행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소득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농식품부나 여러 전문가들이 소득사업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 반영을 신중하게 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환경정비 또는 정주환경개선사업이고 소득 측면의 사업은 다른 정책지원사업(예를 들어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복합산업화사업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 확보의 곤란, 소득사업이 당초의 취지대로 주민공동수익사업이 되지 못하고 이름만 빌린 사실상 1인 또는 극소수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되는 폐해 등도 거론된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20% 자부담이 부담스럽거나 향후 운영에 대한 불안감 등이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득사업의 선정, 조합원 선정, 시설 운영, 소득배분 등 추진과정에 있어서 주민갈등의 발생에 대한 우려도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소득사업이 적극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선 농촌마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추진동력과 주민참여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선정단계에서는 주민들이 뭉쳐 강한 추진 의욕을 보이지만 주민소득사업이 없을 경우 사업추진기간이 오랜 기간에 걸치는 점, 주민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부족 등으로 점차 관심이 멀어지고 나중에는 지자체 또는 위탁받은 농어촌공사의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상향식 주민참여적 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득사업이 없거나 미흡할 경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있다. 소득사업을 통해 조달된 권역발전기금은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민소득사업이 없거나 미흡할 경우 또는 사업은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권역발전기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 유휴화되거나 방치되는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주민소득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실질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주민소득을 발생시키고 농촌체험관광 등을 통해 외지인과의 교류를 통해 권역에 활기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 권역발전기금을 확보해 권역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조달하는 효과도 있다.

3. 선행 연구의 검토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정책적·제도적 측면, 사업내용 측면, 연구 및 조사 방법론적 측면 등 여러 관점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농촌정책적·제도적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예를 들어 이해진(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한국의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농업정책 위주에서 농촌정책 위주로 변화되었음을 밝히고 그 사례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특성과 결과를 주로 계획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내용적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박한식 등(2008)은 2004-2007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전체 사업의 내용을 연도별 사업비 배분, 사업내용별 사업비 비중, 지역별 사업비 분

석, 사업건당 사업비 등의 척도를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방법론적 접근을 택한 여러 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주대진 등 (2004)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참여 방법론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이동근 등 (2005)은 농촌경관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관자원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한성 (2006)은 AHP를 이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투자 우선순위 평가기준의 설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김경량 등 (2006)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체계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구체적 사례 지역을 통해 사업추진과정을 정밀 분석하고 사업의 문제점과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과 시사점을 모색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된 적이 없다. 더욱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중에서 주민소득사업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나 특정 사례를 연구 검토한 논문도 찾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 하나의 사례 지역을 선정해 주민소득사업의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논문과 비교해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소득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분석 틀의 제시

본 논문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 사례지역을 선정해 소득사업 추진과정 전반에서 주민참여과정을 분석하고 아울러 주민소득사업의 여러 가지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소득사업 추진과정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추진과정 즉 예비계획서 수립-기본계획 수립-실시설계의 수립-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예비계획과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소득사업 반영과정, 소득사업 반영후 실시설계 및 시설설치 단계에서 조합원/ 프로그램 협력 참가자의 모집 및 조직화 과정, 시설설치후 소득사업의 실제 운영과정의 3단계별로 소득사업의 주민참여과정을 구분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계획수립단계에서 소득사업 반영과정이다. 계획수립은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예비계획은 권역선정을 위해 주민들이 입안한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권역 선정후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전문기관에

의해 수립된다. 계획수립의 일반적 과정을 살펴 보면 권역 선정 이전에는 다양한 주민소득사업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선정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소득사업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주민스스로 소득사업을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집단이나 관할 행정기관의 권유에 의해 줄기도 한다.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소득사업이 줄어 드는 이유는 낮은 수익창출가능성, 조합원 모집에 대한 자신감 부족, 20% 자부담에 대한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고 있다.

둘째, 실시설계 및 시설설치 단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또는 참가자 모집 및 조직화 과정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하려면 영농조합형태의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고 시설투자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로 조합원 모집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 순수 농민이었던 주민들이 20% 자부담에 대해 부담을 많이 갖는 편이고 나아가서 자부담후 과연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도 모집과정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중 하나다. 추진력있고 경험있는 리더의 존재나 권역내 이전의 주민공동 소득사업 운영 경험도 조합원 모집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또한 조합원이 모집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끌고 갈 리더의 존재와 전담조직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이 또다른 과제가 되고 있다.

셋째, 시설설치후 소득사업의 실제 운영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시설의 운영관리, 홍보 및 마케팅, 고객관리 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실제운영과정에서는 조합원 또는 참가자가 사업의 기획이나 경영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사업의 시행과정에 조합원 또는 참가자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는지, 운영 전담 조직을 갖고 있는지, 사업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 수익배분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직 관리 자치 규약을 제정하고 있는지 등 여러 측면에서 주민소득사업의 참여과정, 권역발전기금의 납부 기준 결정 여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권역리더의 존재 여부, 유통·홍보·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확보 여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소득사업 추진과정의 최종 결과물로서 여러 가지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성과 분석 항목으로는 기업의 유치, 고용창출, 매출 (농산물, 가공식품, 관광프로그램 등), 주민소득 발생, 권역발전기금 확보, 주민참여의 강화 정도, 방문객의 증가 정도 등이 논의될 수 있다.

Table 1 추진단계별 소득사업 성과 분석 체크리스트의 제시

단계	구분
예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단계	예비계획 사업반영여부
	기본계획 사업반영여부
실시설계 및 시설 설치 단계	조합원모집의 정도
	권역주민의 참여정도
	운영 전담 조직의 유무
	추진력있는 권역리더의 존재 유무
시설 설치후 실제운영단계	기획·경영 등에 조합원의 참여 정도
	운영 전담 조직의 유무
	조직관리 차치규약의 제정 유무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유무
	수익배분계획의 수립 유무
	권역발전기금의 납부기준 유무
	추진력있는 권역 리더의 존재 유무
	유통 홍보 마케팅 등 전문가 확보 유무
성과분석	기업유치실적
	권역고용창출
	소득창출 및 배분
	권역 농산물판매
	권역발전기금의 조달
	방문객의 수

III. 구례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추진과정 분석

1.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개요

구례 방광권역은 2008년 말 기준 483세대 1,132명 거주, 면적 18.39km²로 지리산 남쪽 천은사 입구에 있는 6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에는 천은사를 비롯해 천은천 계곡, KT 지리산 연수원, 전라남도 학생수련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구례지사. 여러 개의 야생화 판매업체 등 관광 관련 자원과 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면 총사업비는 6,811백만원이고 추가로 자부담이 634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1단계 (2005-2007) 사업비는 4,500백만원이고 2단계 (2008-2009) 사업비는 2,311백만원을 차지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문화복지부문이 2개 사업 740백만원으로 전체의 10.9%를 차지하고 생활환경 및

경관개선부문이 매천사 주변 정비, 방광저수지 주변 정비 등을 포함해 7개 사업 479백만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관광진흥부문은 참새미골 계곡쉼터조성을 비롯해 3개 사업에 2,679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9.3%를 차지한다. 지역농업부문은 친환경농산물가공공장을 비롯한 3개 사업에 1,687백만원이 배정되어 전체 사업비의 24.8%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관광진흥부문과 지역농업부문은 주민소득증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고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64.1%를 차지하고 있다.



Figure 1 구례 방광권역 주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위치.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도 초에 사업이 착수되었고 2009년말 사업이 종료된다. 2009.10.말 현재 사업추진율은 93.6%다⁷⁾. 어울림 마당 조성사업, 참새미골 계곡쉼터조성사업, 면소재지 공원 (실내 게이트볼장), 우산각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완료되었고 참새미골체험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Table 2 구례 방광권역 부문별, 단계별 사업비 개요
(단위 : 백만원)

부문	사업	단위	총사업비	1단계 (2005-7)	2단계 (2008-9)
총사업비			6,811 (1,288)	4,500 (400)	2,311 (888)
문화복지	복지관 신축	1개소	136		136
	면소재지 소공원	5,789㎡	594	594	
생활환경 및 경관개선	전통우물정비	5개소	52		52
	매천사 주변 돌담정비	19.5m	9		9
	매천사 진입로 확포장	160m	162	162	
	매천사 주차장 조성	650㎡	43		43
	효자비 주변 정비	10m	2		2
	유산각 정비	33㎡	30	30	
	방광저수지 수변정비	1m	181		181
관광진흥	참새미골 계곡쉼터	9,774㎡	490	490	
	지리산 참새미골 체험시설	7,000㎡	936 (444)		936 (444)
	어울림마당 및 공익시설	11,353 ㎡	1,253 (444)	836	417 (444)
지역농업	유기농단지 기반시설확충	800㎡	3	3	
	친환경농산물가 공시설	800㎡	1,600 (400)	1,600 (400)	
	수한건조장 확충	1,320㎡	84	84	
지역역량 강화	브랜드 및 홈페이지 개발	1식	50	50	
	교육, 홍보.마케팅 등	1식	478	300	178
기타	실시설계, 감리 등	1식	595	351	244
용지 매수	방광제 수변, 매천사 주차장	1식	113		113

주 : ()안의 수치는 자부담 별도

2.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주민소득사업 반영 배경과 평가

방광권역은 지리산 천은사 입구에 있는 마을들로 남원-구례간 지방도 861번이 통과하는 곳이다.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권역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역주민소득증대와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주민들은 계획 수립 초기부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광객을 마을로 끌어 들여 머물게 함으로써 권역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수립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또

한 지리산 남쪽 기슭에 있는 청정한 농촌지역이라는 점에 착안해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해 권역 농업 생산과의 연계를 높여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수립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광권역은 2007년 당시 농림부로부터 '부진권역'으로 분류되어 특별관리를 받고 이듬해 사업비 지원이 일시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부진권역으로 평가받게 된 주된 이유는 어울림마당을 비롯한 부지매입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업비 집행이 전반적으로 지연됨으로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고 아울러 참새미골 체험시설에 대한 주민자부담 확보가 곤란해 조합원 모집이 어려웠던 점을 들 수 있다.

사업 초기 어려움의 봉착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다른 권역에 비해 소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편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권역이라고 할 수 있다⁸⁾.

3. 방광권역 주민소득관련 사업의 선정

주민소득증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사업으로는 농산물가공공장, 참새미골 계곡쉼터 운영, 지리산 참새미골 체험시설 운영, 지리산 참새미골 축제 프로그램 운영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주민소득사업으로는 농산물가공공장을 들 수 있으며 황토민박펜션사업을 비롯한 참새미골 체험시설도 주민소득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인접한 어울림 마당은 광장, 주차장, 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소득사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새미골 계곡쉼터는 공원조성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주민쉼터, 관광객 편의시설, 축제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새미골 계곡쉼터는 계절적 한계는 있지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화장실, 창고, 정자 외에도 별도로 전라남도비를 확보해 물놀이체험장(야외수영장)과 샤워실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권역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광권역의 대표적인 주민소득사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지리산 참새미골 축제는 농특산물과 음식의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소득사업으로 분류해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축제는 방광권역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축제 자체가 단지 주민소득 창출 차원에서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화합, 권역홍보 및 지역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지 주민소득사업으로 분류하는데 논란

의 소지는 있지만 향후 권역 축제가 권역 주민 소득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아 이를 주민소득사업의 하나로 분류해 추진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3 구례 방광권역 소득관련사업의 개요

구분	농산물가공 공장	참새미골 계곡쉼터	참새미골 체험시설	참새미골 축제
사업 내용	시리얼 등 식사대용식품 생산 및 판매	야외수영장, 화장실, 샤워실, 정자, 주차장	민박펜션 6동, 농촌체험관 2동, 야생화전시관 1동	체험프로그램, 전시, 공연, 농특산물 및 음식 판매
사업 개요	부지면적 : 800㎡	부지면적 : 9,774㎡	부지면적 : 7,000㎡	
추진 과정	실시설계 : 2007.1. 부지매입 : 2007.6. 준공 : 2008.3. 시설운영 : 2008.3.	실시설계 : 2006.6. 부지매입 : 2007.4. 준공 : 2008.5. 시설운영 : 2008.7.	실시설계 : 2006.6. 부지매입 : 2007.4. 준공 : 2009.12. 시설운영 : 2009.12.	1회 : 2007.9. 2회 : 2009.8.
추진 조직	도올 바이오푸드 영농조합	시설설치 : 권역추진위원회 운영 : 방광마을 개발협의회	지리산참새미골체험시설 영농조합	권역추진 위원회
소요 예산 (기본계획 예산 기준)	1,600백만원 (자부담 400백만원 별도)	522백만원 (이와는 별도로 전라남도 지원사업 200백만원으로 야외수영장 및 계곡 정비사업추진, 평상 등 편의시설물 구입 등 일부 자부담)	936백만원, (자부담 234백만원 별도)	지역역량 강화사업, 권역발전 기금 등 활용

기타 주민소득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중 도농교류이벤트나 브랜드 개발 등 각종 홍보·마케팅 사업 등이 있지만 그 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직접적으로 소득과 관련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유기농단지기반시설확충, 수한건조장 확충 등도 부분적으로 소득관련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규모가 작고 파급효과가 미미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4.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권역내 일반 주민의 의견 검토

권역 주민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인지도, 성과에 대한 평가,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 설문조사는 2009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권역에 속하는 6개 마을 주민 212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조사방식에 의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남자 126명, 여자 86명이었고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8명, 50대 28명, 60대 44명, 70대 이상 111명, 80대 이상 21명의 분포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주민은 38%,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주민은 39%로서 긍정적인 응답이 77%를 차지했다.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알고 있나 측정하기 위해 농촌마을사업 시행기간을 질문했더니 응답자의 29%가 5년이라고 정답을 말했다고 3년과 4년이 각각 25%, 19%를 차지했다. 주민들이 가지적으로 느끼는 사업착수시점이 1-2년 늦어진 것이 일부 주민들에게는 시행기간을 5년보다 적게 알고 있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권역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많이 기여’가 51%, ‘어느 정도 기여’가 38%로서 긍정적인 응답이 89%를 차지했다.

권역발전기여에 대한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방광권역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권역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거나 장차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을 꼽으라는 설문에서 ‘계곡쉼터’가 27%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도올바이오푸드 농산물 가공공장’과 ‘황토민박펜션’이 각각 18%와 17%로서 두번째와 세번째 응답을 보였다. 계곡쉼터는 제2회 참새미골 축제가 열린 장소로 대다수 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크게 각인된 점도 있고 계곡쉼터를 활용해 여러 가지 소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권역의 변화중 가장 큰 것은 ‘권역 환경 개선’이 3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사업’이 18%로 두 번째를 차지했고 ‘마을경관개선’과 ‘주민의식 변화’가 각각 16%를 차지했다. 권역환경개선은 주민들에게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가 일반 주민들에게도 인식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소득 사업이 두 번째 성과로 인식되고 있다.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주민들은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 미흡’이 37%로 가장 많았고 ‘주민참여 미흡’과 ‘소득증대와의 연관성 미흡’이 각각 27%, 20%로서 다음을 차지했다. 방광 권역의 경우 다른 권역에 비해 주민소득사업의 비중이 매우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대와의 연관성 미흡이 세 번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향후 권역내 여러 가지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득사업과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소득증대사업의 확대’가 46%로서 현저하게 많았고 ‘마을환경개선사업의 확대’가 25%로 두번째 응답을 차지했다.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IV. 구례 방광권역 주민소득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1.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도올 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 운영

가. 사업 개요

농산물가공공장 도올 바이오푸드 영농조합은 보조 16억원과 자부담 4억원을 합쳐 20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 3월 HACCP 시설을 갖춘 건평 800㎡의 공장을 준공하고 2008년 3월부터 시리얼 등 식사대용식품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천은천 삼거리 참새미골체험시설과 인접해 위치하고 있다.

나. 추진과정

도올 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은 방광권역에서 창업했다기 보다는 현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4km 떨어진 인근의 용방면에서 가동중인 농산물 가공공장을 확장 이전한 것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된 농산물 가공공장의 본격 운영을 위해 2008년 3월 도올 바이오푸드 영농조합을 설립했고 권역 주민 일부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비계획 수립시부터 도울을 염두에 둔 농산물 가공공장의 설립이 제안되었다. 회사에 대한 특혜 우려가 일

부 제기되었지만 회사의 기존 경영경험과 실적, 향후 사업계획 및 전문경영인의 존재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동 사업은 16억원 (자부담제외)의 많은 예산부담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기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권역내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다른 권역에서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의 공장운영경험부족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20% 자부담 문제도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되었다. 조합원의 확보도 기존 회사의 이사진에 일부 주민이 합류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되었다. 추진력있는 리더로서 전문경영인의 존재는 위 공장이 갖고 있는 유력한 자원중 하나로 평가된다.

다. 주요 성과

실제 운영을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부족한 현 단계에서 가공공장의 주요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점 들 수 있다. 첫째, 권역발전기금의 확보다. 2008년 첫째 운영후 공장건설 보조비의 1%를 매년 출연한다는 주민협약의 규정에 따라 2008년 말 1,600만원을 추진위원회에 출연하였다.

둘째, 2009년 8월 현재 권역내 주민 10여명이 영농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사로서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민은 아직 없다. 권역내 조합원의 직업은 농업 60%, 비농업 40%로서 상대적으로 권역 전체 직업 구성비에 비해 비농업인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연령은 40대 30%, 50대 20%로서 권역내 전체 연령 구성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참여하고 있다.

Table 4 도올 바이오푸드 영농조합 지역주민 참여 현황

구 분	내 용
직 업	농업 60%, 비농업 40%
연 령	40대 30%, 50대 20%, 60대 50%
성 별	남자 60%, 여자 40%
회사경영 또는 유통서비스 직종 경험	보유 40%, 미보유 60%

셋째, 권역 주민의 농산물가공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의 발생이다. 2008년말 결산을 통해 출자금의 16%에 해당하는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권역 주민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투자소득을 확보하게 했다.

넷째, 가공공장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매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추수철에 벼 300가마를 가마당 5만2천원에 수매할 계획이고 장차 지역농산물 수

매를 적극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다섯째, 지역고용창출을 들 수 있다. 가공공장에 권역 주민 2명이 취업해 일하고 있다. 이외에 시간제 근무자 다수가 일하고 있다.

라. 평가 및 과제

동 공장은 농산물 가공제품과 가공제품의 유통에 전문성있는 경영인을 권역 외부에서 유치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농촌주민과 공동협력을 통해 권역발전을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가공 및 유통에 전문성이 결여되는 권역 주민들은 적극적인 경영 참여보다는 경영수익을 배당받거나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가공공장과 지역소득증대의 연계 강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물론 일부 권역 주민 출신 조합원중에서는 공장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영인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회사경영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합원의 직접적인 경영참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인과 주민 조합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의 사례로서 경영인은 대도시 소재 유통전문가를 성과급에 기반한 탄력있는 채용을 통해 급변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권역 주민 조합원중 일부는 이와 같은 채용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인사채용방식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농산물 가공공장이 향후 풀어 나가야 할 과제로는 권역주민 또는 조합원으로부터의 투명한 경영 요구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의 성과가 권역 농산물 구입의 확대 등을 통해 권역내에 고르게 파급되어야 하는 점, 권역내 주민 고용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해 실질적으로 고용 효과가 제고되어야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2. 참새미골 계곡 쉼터 운영

가. 사업 개요

참새미골 계곡쉼터는 천은천 삼거리에서 서쪽으로 200m 거리에 위치하며 약 2만㎡의 부지에 물놀이체험장 (540㎡), 정자 6개, 주차장 (승용차 70대, 1,800㎡), 화장실, 샤워 및 탈의실 (63㎡), 보관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490백만원으로 계곡쉼터 안 전시설 (펜스), 주차장, 화장실, 정자 등이 갖추어졌고 전라남도의 농촌체험마을사업비 2억원을 들여 물놀이체험

장 (야외수영장), 샤워 및 탈의실, 정자 등이 확보되었다. 추가로 전라남도에서 4천만원을 들여 계곡쉼터의 하천정비사업이 이루어졌다.

동 부지는 일반 외부인들에게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여름 피서철에 시원한 계곡을 찾아 일부 외지인들이 방문해 피서를 즐기는 곳이었다. 동 부지는 권역에 있는 좋은 관광자원이지만 그동안 주민소득증대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곳이었다.

나. 추진과정

천은천 계곡쉼터 조성은 예비계획 단계에서 주민 제안에 의해 반영되었다.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자연환경훼손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큰 논란없이 사업계획으로 반영되었다. 기본계획반영후 부지확보단계에서 권역이 원하는 일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사업추진에 크게 문제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계곡쉼터 조성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의 사업 유형중 소득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조합원 및 전문경영인의 확보, 주민자부담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2008년 5월 계곡쉼터의 휴식 및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자 동 부지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주민소득증대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08년 여름 권역에서는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계곡쉼터를 이용한 마을수익사업을 기획·운영하기 시작했다.

추진위원회는 2008년 7월초부터 8월 중순까지 평균적으로 주말 150여명, 주중 7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평상대여 (20여개), 닭백숙, 아이스크림 등의 음식과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했다. 2009년 8월에는 제2회 참새미골 축제를 이곳에서 개최해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계곡쉼터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에는 평상의 추가설치 (총 40여개)와 물놀이체험장의 설치로 더욱 많은 권역공동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다. 평가 및 과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서 계곡쉼터조성사업은 권역내 여러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첫째, 권역내 첫 번째로 마을 공동 수익사업이 추진되었다. 천은사를 거쳐 지리산을 통과하는 관광객이 연간 300여만명이 이 름에도 불구하고 방방권역은 관광객과 주민소득을 연결하지 못하고 지리산 통과지역 정도로 인식되곤 했다. 그러나 계곡쉼터에 물놀이체험장 및 휴게·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권역내 머무는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주민소득증대와 연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수익사업을 전제로 한 권역 조직화와 역할분담 경험을 쌓고 있다. 쉽터 관리와 판매를 위해 지역주민 1인을 상시 고용하고 나머지 필요한 일은 지역주민에게 일당 2~5만원을 주고 일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게 했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권역추진위원회와 방광마을 개발협의회에 발전기금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출발한 계곡 쉽터 조성사업은 동 사업으로는 부족한 사업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연계사업을 연구·발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행정과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주민대표들이 자발적으로 2008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기획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기존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권역에 추가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농식품부의 새 방침에 의해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에는 실패했지만 동 사업제안서가 바탕이 되어 전라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체험마을시설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물놀이체험장과 샤워·탈의실을 갖추고 추가로 전라남도의 지원비 4천만원을 확보해 천은천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계곡 쉽터시설을 보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스스로 노력하기에 따라서 권역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었고 권역 공동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참새미골 계곡쉽터 운영에서 향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다음 몇가지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화 및 주민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주민 조직화이다. 계곡쉽터를 운영할 때 참여주체간 합리적인 역할분담구조를 통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치중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분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익배분 규칙의 제정을 들 수 있다. 현재 마을개발협의회가 계곡쉽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자치규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개적인 수익배분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권역발전기금납부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사안중 하나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익배분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간 갈등과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다. 넷째, 야외수영장 및 계곡 물놀이에는 늘 안전 문제가 뒤따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참새미골 체험시설 운영

가. 사업개요

참새미골 체험시설은 천은사 삼거리 남측 100m 지점에 위치하며 황토민박펜션 6동 12실, 농촌체험관 2동, 야생화전시관 1동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바로 인접해 북쪽으로 어울림마당과 지역활성화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동측으로 농산물가공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사업비는 총 1,380백만원이고 이중에서 국비 936백만원, 자부담 44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3월 ‘지리산 참새미골 체험시설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했고 2009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다.

나. 추진과정

참새미골체험시설사업도 주민제안방식으로 다른 여러 가지 주민소득사업과 함께 예비계획에 반영되었다.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버섯 재배 등 일부 소득사업은 국고 보조 혜택이 소수 주민에게 귀속되고 판매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지만 참새미골체험시설사업은 천은사 입구 지리산 관문 마을이라는 권역의 지리적 특성과 도농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실시설계 및 시설설치단계에서 체험시설의 입지가 기조성중인 어울림마당과 지역활성화센터 인접 지역으로 최종 결정되고 토지를 확보한 이후에도 영농조합의 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서비스업 운영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이 20% 자부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많이 갖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권역내 여러 주체들의 노력을 거쳐 영농조합이 결성된 후에도 조합원의 변동이 자주 있었고 2009년 8월 현재 14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을 결성해 연말에 준공 예정인 참새미골체험시설의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조합원은 크게 숙박과 체험의 2가지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숙박에 관심있는 조합원은 12인, 체험프로그램운영에 관심있는 주민은 3인(숙박 1인 중복 포함)으로 각각 우리밀체험, 야생화·압화체험, 산채체험을 계획하고 있다.

지리산 참새미골 체험시설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제주도의 관련 시설 답사를 비롯해 토론과 자체 워크숍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2009년 8월 5일 조합원 14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숙박시설운영과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은 별개로 운영하기보다는 하나의 조직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사업 초기 조합원 모집시 조합 참여 희망자들의 주된 관심은 숙박과 체험의 분리 운영이었고 심지어는 12개의 침실, 2개의 체험관, 야생화전시관 모두를 각자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였다.

Table 5 ‘지리산 참새미골 체험시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구성 현황

구 분	내 용
직 업	농업 10, 비농업 4
연 령	40대 2, 50대 7, 60대 4, 70대 1
성 별	남자 12, 여자 2
회사경영 또는 서비스업 참여경험	유 4, 무 10

장래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할 경우 이를 조달하기 위해 기존 조합원내에서 해결해야 할 지 아니면 권역내 주민이 원할 경우 조합원 개방을 통해 해결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

시설이 준공된 후 사무장 채용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대부분이 동의하였다. 사무장과는 별도로 전문경영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71.4%가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먼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경험을 쌓은 후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문경영인을 초빙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과 처음부터 전문경영인을 초빙해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조합원의 78.6%는 참새미골 체험시설 운영후 권역기금납부방식에 대해서 보조금의 일정비율 방식보다는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일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조만간 준공될 참새미골 체험시설의 효과적 운영 방법에 관해 아직 조합원간의 의견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업 초기에 비해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평가 및 과제

참새미골 체험시설 운영에 있어서 향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자치규약의 제정이다.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시설을 소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적합한 자치규약을 통해 예견되는 문제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관리조직의 구성이다. 전문경영인을 도입할 지 사무장을 두고 주민들이 직접 경영할 지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셋째, 수익배분과 권역발전기금 납부 규칙의

제정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익배분과 권역발전기금의 제정은 향후 구성원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중 하나이다. 넷째, 전문성 확보이다. 조합원 또는 주민이 직접 사업 운영을 담당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서비스, 회계 처리, 프로그램 기획·홍보 및 마케팅, 고객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다.

4. 지리산 참새미골 축제 프로그램 운영

가. 사업개요

방광권역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교육, 홍보 및 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프로그램 구성이 다른 권역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차이점이 있다면 1단계에서 권역 공동의 축제를 규모있게 개최했고 2단계에서도 1번의 축제와 3번의 도농교류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추진과정

1997년 9월에 개최한 제1회 축제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어울림마당에서 300여명의 주민이 모여 주민회합과 단결을 다지는 행사를 가졌었다¹⁰⁾. 물론 당시의 축제에도 일부러 적극적으로 초청한 것은 아닐지라도 자연스럽게 외부 관광객도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함께 즐기기도 했다.

2009년에 개최된 제2회 축제는 의도적으로 권역주민과 관광객을 함께 고려하는 축제로 기획되었고 그래서 날짜와 장소도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여름철 휴가시즌인 8월1일(토요일)로 정하고 장소도 천은천 계곡쉼터로 정했다. 축제기획에 있어서도 이벤트 회사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완전히 일임하지 않고 권역주민들이 스스로 농촌체험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훈련과 연습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주민들은 개구리 멀리 뛰기 대회, 물놀이 체험장을 활용한 장어잡기 대회, 옷놀이대회, 보물찾기대회, 전통찜빵체험, 우리밀 음식 만들기 체험 및 판매, 야생화 압화 및 액세서리 전시 및 판매, 전원마을 관악중주단 초청 공연, 하드웨어 사업 시행자의 협력을 통한 무대의 설치, 지인들에 대한 초청장 발송, 권역내 거주 기타리스트 초청 연주, 구례군내 이웃 농촌마을사업 권역을 초청해 판매 및 전시 부스의 운영, 축제장 환경 조성 및 주차 안내, 마을별로 주민과 초청인사, 일반 관광객을 위한 음식 준비 등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다. 평가 및 과제

주민들이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축제는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축제에 대한 만족을 배가시켰다. 축제를 통한 지역농특산물과 향토음식의 판매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축제를 통해 새로 조성된 계곡쉼터를 외부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III. 4.에서 언급한 주민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2회 참새미골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59%, ‘만족’이 32%로서 91%의 주민이 축제 개최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주류를 이루었다. 축제 개최의 효과로는 ‘주민회합과 친목도모’가 46%로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축제를 통한 권역 홍보’와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의 계기’가 각각 25%와 17%를 차지했다 (양자를 합치면 42%). 아직 주민들은 축제를 통한 홍보와 소득창출보다는 주민회합과 친목도모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또는 군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축제가 계속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는 질문에 ‘계속 열렸으면 좋겠다’가 54%로서 높은 응답을 보였고, ‘계속하면 좋겠지만 권역 여건상 곤란할 것 같다’는 응답도 33%를 차지했다. 두번의 축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컨설팅 기관의 협력하에 추진되었지만 향후 컨설팅 기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축제를 기획·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권역축제는 권역내 자원과 농산물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권역주민이 공동으로 역량과 아이디어를 모아 기획하고 추진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두번에 걸친 권역 축제에 대해 권역주민들은 축제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고 축제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축제를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소득증대를 위해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향후 축제가 지속된다면 지역소득증대와 밀접한 연관관 맺는 연결 고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추진단계별 소득사업 추진과정상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가. 예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소득사업의 반영 과정

예비계획서는 2004년도에 수립되었다. 예비계획서상에는 친환경농산물가공사업, 농촌체험관광사업 외에도 느타리버섯재배사업, 새송이버섯재배사업, 야생화재배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4.11.20.과 2005.1.27.의 2차례

에 걸친 기본계획수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¹¹⁾에서 방광권역의 소득사업을 얼마나 반영할 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자문회의에 참가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방광권역을 다른 일반적인 권역과는 달리 소득사업 중심의 시범 권역으로 간주하고 사업추진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 기본계획상 소득사업의 종류가 많고 성공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농림부 주관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에 소득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연구¹²⁾를 추진하게 되었고 2005.2.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중에서 느타리버섯재배사업, 새송이버섯재배사업, 야생화재배사업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되는 추세이고 상업적인 버섯 또는 야생화재배사업을 수행해 본 주민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소득사업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산물가공공장 설립을 비롯한 농촌체험관광사업은 소득사업으로 시도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나. 실시설계 및 시설설치단계에서의 조합원/참가자 모집 및 조직화 과정

농산물가공공장, 참새미골 계곡쉼터, 참새미골체험시설 등 3개 주요 시설투자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2007.4.-6경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참새미골 계곡쉼터 토지매입에는 그다지 큰 갈등이 없었지만 참새미골체험시설 등 부지매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당초 계획했던 천은천 3거리 지점의 토지소유자가 외국 거주 교포로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데다 매매를 원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위치를 원래 부지 남측으로 이전해야 했다. 시설 준공은 2008.3. 농산물 가공공장이 가장 먼저 준공했고 이어서 참새미골 계곡쉼터가 2008.5. 준공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새미골체험시설은 2009년 12월말 준공 예정이다. 참새미골축제는 제1회의 경우 2007.9.7. 개최되었고 제2회의 경우 2009.8.31. 이루어졌다.

농산물가공공장과 참새미골체험시설의 경우 추진조직으로서 영농조합을 구성·운영해야 했는데 농산물 가공공장의 경우 2007.6. 영농조합 결성을 마쳤고 참새미골체험시설의 경우 2008.7. 영농조합을 결성했다. 농산물 가공공장의 경우 준공 이전 큰 어려움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다. 참새미골 체험시설의 경우에는 참가자 모집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농산물가공공장에서 조합원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기존 공장 운영 실적, 향후 수익발생 전망, 경험 있는 전문경영인의 존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참새미골 체험시설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 회의, 답사, 권유 등을 통해 주민 학습이 이루어진

이후 비로소 겨우 조합을 결성할 수 있었다.

참새미골 체험시설 영농조합원은 실시설계 및 시설설치 단계에서 수 차례에 걸친 회의와 시공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기대하는 바가 시설설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강구하였다. 그러나 논의의 많은 부분이 추가적인 자부담의 경감에 집중된 문제점도 있었다.

실시설계 및 시설 설치 단계에서 계곡쉼터 조성과 관련한 주민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이를 별도로 모니터링하는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추진위원회의 몇몇 임원 (현 추진위원장, 건설업 경력의 전 추진위원장, 사무장)이 조성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계곡쉼터의 추가 시설 설치 과정에 추진위원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지역 의원, 지자체 장들과 여러 차례 교섭후 도비 지원사업을 통해 야외수영장, 샤워실, 계곡정비 사업 재원을 마련해 계곡쉼터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다. 시설 설치후 소득사업의 실제 운영 과정

시설 준공후 소득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는 사업 유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농산물가공공장의

경우 2008년 방광권역으로 확장 이전한 이후 지금까지 공장 가동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계곡쉼터는 2008년과 2009년 여름철 휴가철을 전후로 2-3개월 정도 운영되고 있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더욱 보완된 시설로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참새미골체험시설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준비 중에 있다. 참새미골 축제는 2007년과 2009년 2회에 걸쳐 추진되었다.

농산물가공공장의 경우 시설 가동 이후 한 차례 조합원의 큰 변동이 있었다. 2009년 초 많은 권역 주민이 조합에서 탈퇴하고 새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했다. 경영방식에 관한 경영자와 일부 조합원의 다른 의견이 해소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조합원들은 경영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계곡쉼터는 운영과정에서 프로그램의 기획, 시설의 보완, 시설 운영, 수익 배분 등 여러 측면에서 주민참여와 협력이 높아지고 있고 수익창출 면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방광마을 개발협의회의 주도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계곡쉼터 운영에 관한 자치 운영규약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수익배분기준이나 권역발전기금의 납부도 공식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참새미골축제는 컨설팅 기관의 지원하에 주민 주도로 기획

Table 6 추진단계별 소득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 분석 요약

단계	구분	농산물 가공공장	참새미골 계곡쉼터	참새미골 체험시설	참새미골 축제
예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단계	예비계획 사업반영여부	반영	반영	반영	미반영
	기본계획 사업반영여부	반영	반영	반영	미반영
실시설계 및 시설 설치 단계	조합원모집	모집완료	해당사항없음	모집완료	해당사항없음
	권역주민참여	소극 참여	적극 참여	적극 참여	참여
	운영 전담 조직	상시 및 공식 조직 (영농조합 이사회 및 회사조직)	소수 참여 일시 및 공식 조직 (마을개발협의회)	이사회 상시 및 공식 조직 (영농조합)	일시 및 공식 조직 (축제추진위원회)
시설 설치후 실제운영단계	기획·경영 등 참여	소극적	적극적	적극적	소극적
	운영 전담 조직 유무	존재 (이사회 및 회사 조직)	일시 및 공식 조직, 다수 참여	이사회 및 상근 전담사무장 (예정)	중간
	자치규약 제정 유무	제정	미 제정	미제정	미 제정
성과분석	기업유치실적	유치	없음	유치 (예정)	없음
	권역고용창출	상근 및 임시	임시	상근 및 임시 (예정)	임시
	소득창출 및 배분	많이 창출	창출	창출 (예정)	미흡
	권역 농산물판매	미약 (향후 증가예정)	미흡	미흡 (예정)	미흡
	권역발전기금의 조달	납부중	미정 (향후 납부예정)	납부 (예정)	미 납부
	방문객 수	월 120여명 (주요 견학 및 체험)	여름철 1일 70-150명	월 300 -500명 (예정)	1회당 300-500명

되고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장어잡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일부 프로그램 운영 수익을 창출했으나 농산물과 음식 판매에는 아직 큰 성과가 없었다. 향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재정적, 인적 지원이 없을 경우라도 참새미골 체험시설을 자체적으로 기획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로 판단된다.

라. 성과분석

권역내 기업유치실적은 기 이전한 농산물가공공장과 향후 준공될 참새미골체험시설을 들 수 있다. 참새미골 체험시설내에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관 운영업체의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역내 주민의 고용창출은 상근 및 임시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산물가공공장의 경우 2명의 상근직원 채용과 필요에 따라 임시직 형태의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 계곡쉼터운영에 있어서도 여름철에 한정되긴 하지만 상근직 1인과 다수 주민의 시간제 근무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 참새미골체험시설의 본격 운영시 2-3명의 상근직과 다수의 비상근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발전기금의 납부에 있어서도 농산물 가공공장의 경우 기 납부중이며 참새미골체험시설의 경우에도 유사한 기준에 의해 납부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다. 계곡쉼터의 경우에 있어서도 향후 기금납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문객수는 2009년 한해 동안 농산물 가공공장 견학 및 체험객이 월 120여명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계곡쉼터의 경우 여름철 1일 평균 약 70-150명이 방문하고 있다. 참새미골체험시설의 경우에도 월 3-5백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V.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이전의 다른 농촌지역개발사업과 비교해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여러 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하나의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 파트너쉽과 지역 특화자원의 활용에 기초한 상향식 지역개발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구례 방광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중 주민소득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광권역의 주민소득사업 비중은 여타 다른 권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편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04-2007년까지 전국 132개 권역의 소득사업비중은 전

체 사업비의 20.8%인데 비해 방광권역의 경우 농산물가공공장과 참새미골체험시설의 사업비만 하더라도 권역 전체 사업비의 37.2%(자부담 제외)를 차지한다. 농산물가공공장은 기 운영되고 있고 참새미골체험시설은 2009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있다. 참새미골 계곡 쉼터와 축제는 직접적으로 소득사업에 속하지는 않지만 주요 소득원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방광권역의 사례에서 소득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는 영농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참여, 상시 및 일시 고용형태의 취업기회 획득 및 주민소득창출, 소득사업과 지역 농산물 판매와의 연계 강화,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과정에서 주민참여, 시설설치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자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전문성과 투명성의 확보, 사업추진주체의 조직화, 권역주민들의 조합원 참여의 확대, 권역내 농산물 생산과의 연계 강화, 회계처리의 투명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익배분기준의 확립 등은 주민참여와 관련해 소득사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셋째, 구례 방광권역의 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사업의 존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권역내 각종 시설의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의 방치 또는 유희화에 대한 우려 및 유지관리비 부담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¹³⁾. 이미 여러 권역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방광권역의 경우 농산물 가공공장에서부터의 기금출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참새미골체험시설로부터의 기금출연도 예정되어 있다. 향후 계곡쉼터운영을 통해서도 일정한 권역 기금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방광권역의 경우 권역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권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원이 마련되고 있어 향후 권역 발전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주민소득사업은 단지 해당 소득사업 뿐만 아니라 권역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반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득사업은 또한 마을간의 두터운 벽을 허물고 권역단위의 사업을 구상하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방광권역의 경우 특히 참새미골 축제의 기획이나 시행과정의 참여나 계곡쉼터 운영 경험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점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사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방광권역의 사례 검토를 통해 주민소득사업의 성과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민소득사업은 축소·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주장과 견해도 불구하고 주민소득사업은 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체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주민역량과 권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가능한 한 주민소득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사업 비중이 높고 실제 경험 면에서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운영 경험이 가장 많은 농산물 가공공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전 후 가동시기가 2년이 채 안되고 계속셔터운영의 경우에도 두 해 여름에 걸쳐 3-4개월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참새미골체험시설의 경우 아직 가동이 시작되지 않았다. 운영경험 차원에서 볼 때 아직 소득사업의 문제점과 성과를 분석하기에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농산물 가공공장의 경우 새로 창업했다기 보다는 인근 마을에서 기존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기업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전 확장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농촌마을종합개발 주민소득사업의 경우 전문기업인이 아닌 지역 주민이 주도해 만들어지는 영농조합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업운영의 특성상 경영회계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얼마나 매출이 이루어지고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소득사업의 실제 운영경험을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소득사업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주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균형발전정책교본)』, 고려프린테크, 2007, 100쪽에서 인용.
 주2) 시기별 농촌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대진·김진모, 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참여 방법론 탐색”, 한국농촌지도학회, 『농촌지도와 개발』, 제11권

제2호, 305쪽을 참조.
 주3) 소득사업 추진의 어려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한식 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내용분석과 시사점 - '04-'07년 사업대상지 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제14권 제4호, 2008, 127쪽 참조.
 주4) 유럽연합의 LEADER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2007, 38-49쪽 참조.
 주5) 상계서, 48쪽.
 주6) 상계 논문(박한식 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내용분석과 시사점 - '04-'07년 사업대상지 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제14권 제4호, 2008) 참조.
 주7) 구례군, 행정내부자료, 2009.7.말 현재.
 주8) 이를 반영하듯 방광권역에는 2008년초부터 2009년 11월까지 약 2년동안 총 40여 차례에 걸쳐 타 권역 또는 마을로부터 단체 견학 (추정 방문객수 약 1,400명)이 있었고 권역내 소득사업추진경험이 방광권역의 주된 방문이유로 꼽히고 있다.
 주9) 구례 방광권역의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한국농촌공사, 『구례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2단계 지역역량강화(S/W)사업 기획설계서』, 2008.8.와 구례군·한국농촌공사, 『구례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S/W)사업 기획설계서』, 2006.9. 보고서를 참조.
 주10) 제1회 참새미골 축제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례군·한국농촌공사 구례지사, 『구례군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S/W) 사업 (컨설팅, 홍보 마케팅 부문) 최종보고서』, 2007.12.를 참조.
 주11) 2005.1.27. 진행된 2차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사업의 실천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도울 F&B의 참여는 가공을 통한 소득 확대와 안정적 판매라는 측면에서 시도해 볼 만한 사안이다. 다만 사업 성과가 전체 권역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도울 F&B의 참여가 특정에 대한 혜택으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버섯 재배에 관한 소득사업은 혜택이 일부에 집중될 우려가 있고 공급과잉 등으로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주12)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 『구례군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소득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연구』, 2005.5., 보고서를 참조.
 주13) 우리나라 농촌마을종합개발 소득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권역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조사분석은 한경수·김기현·전택기·임대호·최윤상,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점검을 위한 평가지표 적용사례”,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제13권 제2호 (2007), 126쪽을 참조.

참고문헌

1. 구례군, 2005. 5, 구례군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소득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연구, 86.
2. 구례군, 농업기반공사, 2005. 6,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323.
3. 구례군, 2009. 5,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행정내부자료.
4. 구례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방광권역 추진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자료.
5. 구례군, 한국농촌공사 구례지사, 2007. 12, 구례군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S/W) 사

- 업 (교육부문) 최종보고서, 336.
6. 구례군, 한국농촌공사 구례지사, 2007. 12, 구례군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S/W) 사업 (건설팀, 홍보 마케팅 부문) 최종보고서, 242.
 7. 구례군,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2009. 2, 구례군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S/W) 사업 (교육,건축,홍보마케팅) 결과보고서, 180.
 8. 구례군, 한국농촌공사, 2008. 8, 구례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2단계 지역역량강화(S/W)사업 기획설계서, 78.
 9.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균형발전정책교본), 고려프린테크.
 10. 김경량, 최윤상, 홍성규, 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체계 개발,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12(2), 65-73.
 11. 농림부, 2007. 12, 주민참여형 농촌마을가꾸기 1, 농촌지역개발 표준교재, 224.
 12. 박한식, 황길식, 김영택, 200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내용분석과 시사점 -'04-'07년 사업대상지 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4(4), 121-128.
 13. 이동근 외 5인, 2005, 농촌경관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관자원분류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11(2), 21-34.
 14. 이한성, 2006, AHP를 이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기준의 설정, 농업정책학회, 농업경영·정책연구, 33(1), 183-197.
 15. 이해진, 2009,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사례로,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7-47.
 16. 주대진, 김진모, 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참여 방법론 탐색, 한국농촌지도학회, 농촌지도와개발, 11(2), 303-320.
 17. 한경수, 김기현, 전택기, 엄대호, 최윤상, 200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점검을 위한 평가지표 적용 사례,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13(2), 121-132.
-
- 접수일: (2009년 11월 5일)
 수정일: (1차: 2009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09년 12월 3일)
 ■ 3인 익명 심사필